

맞벌이가구수 역대 최고...30~50대 부부 절반이 함께번다

통계청, '맞벌이·1인가구 고용현황' 발표

567만가구가 맞벌이...비중도 46.3% 역대 최고
불황에 육아 부담까지 겹쳐 노동시장 女 인구↑

지난해 맞벌이 가구 수와 비중이 1년 전 대비 올라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. 불황에 육아 부담까지 겹쳐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여성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.

30~50대 부부의 경우 절반가량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 자녀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부가 맞벌이를 할 확률도 높아졌다.

통계청이 25일 발표한 '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(부가항목)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'에 따르면 지난해 유(有)배우 가구(가주부가 배우자를 둔 가구)는 1224만1500가구로 조사됐다. 이 중 맞벌이 가구는 567만1500가구로 유배우 가구의 46.3%를 차지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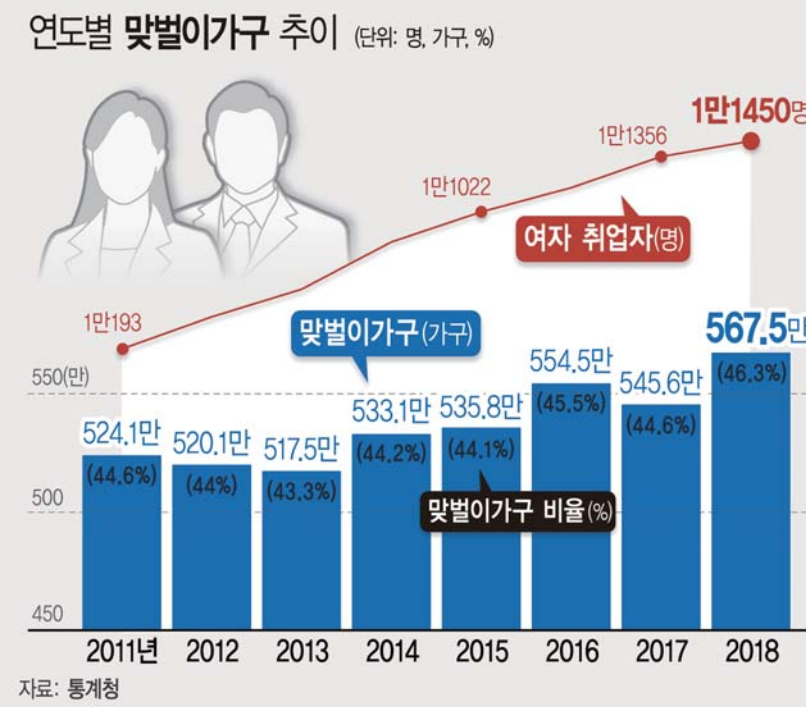
맞벌이 가구 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년 대비 매년 증가하다가 2017년 고용 상황이 악화되면서 소폭 감소했다. 그러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를 회복했다. 1년 전과 비교해보면 맞벌이 가구는 21만9000가구(4.0%) 늘어났고 비중은 1.7%p 올랐다. 모두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

이다.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기간 맞벌이가 아닌 가구는 19만1800가구(-2.9%) 감소했다.

통계청 관계자는 "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면서 맞벌이 가구 수 역시 추세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"고 설명했다.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여성 취업자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해

왔다. 가구주 연령이 15~64세 사이로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'생산연령인구'에 속하는 유배우 가구는 989만1500가구로 전년 대비 7만1800가구 감소했다. 그러나 이 중 맞벌이 가구는 507만1500가구로 1년 전보다 16만1400가구 늘었다. 비중 역시 2.0%p 올랐다.

맞벌이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가구주의 연령계층별로 나눠 보면 40~49세가 54.2%로 가장 높았다. 50~64세 가구주를 둔 맞벌이 가구 비중도 50.5%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30~39세 역시 49.9%로 절반에 육박했다. 증가 폭은 50~64세(12만 가구), 65세 이상(5만1500가구) 등에서 컸다. 가구주가 50세 이상인



맞벌이 가구는 전체 맞벌이 가구의 52.1%를 차지했다.

자녀의 학력이 높을수록 맞벌이 비중도 상승했다. 의무교육 재학 자녀를 둔 여성 가구의 맞벌이 비중을 보면 자녀 학력이 고등학교 이상인 경우 60.8%로 가장 높았다. 중등 재학일 때 60.3%, 초등 재학일 때 54.0%, 미취학 아동일 때 44.5%였다.

가구주의 교육정도별로 나눠 보면 대졸 이상이 48.8%로 가장 컸다. 고졸은 47.1%, 중졸 이하는 38.8%였다. 대졸 이상 가구주가 있는 맞벌이 가구는 전년 대비 17만2000가구

늘어났다. 통계청 관계자는 "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대졸 맞벌이 가구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"며 "육아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할 때 젊은 층 사이에서 맞벌이를 선호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"고 설명했다.

가구주가 '취업자인 가구'는 987만4000가구로 조사됐다. 이 중 맞벌이 가구는 667만1500가구로 전체의 57.9%를 차지했다. 산업별로 맞벌이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농림어업(83.4%), 도소매·숙박음식점업(82.7%),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 등(56.8%), 광·제조업(52.2%),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업(52.0%) 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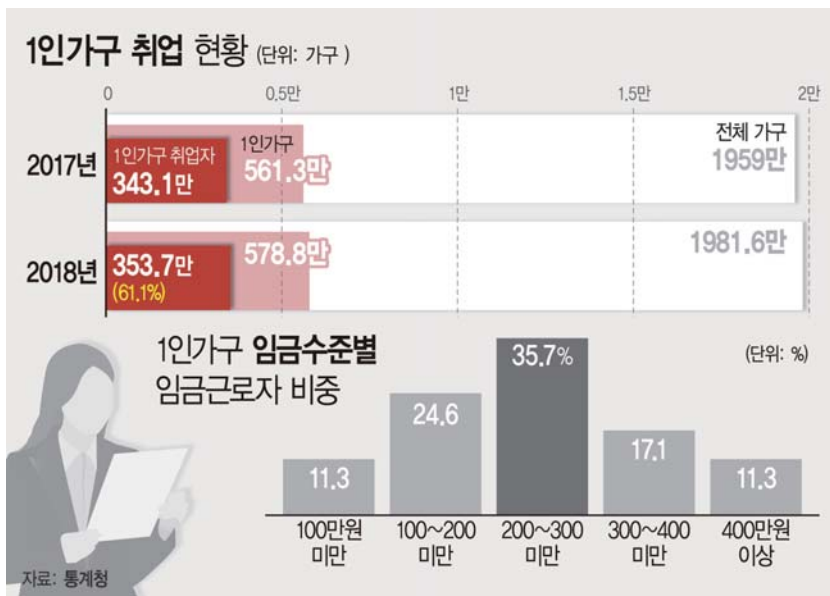
순으로 높았다.

같이 살고 있는 맞벌이 가구(499만3000가구) 중 부부가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중은 37.8%였다. 농림어업의 비중이 81.2%로

가장 높았고 도소매·숙박음식점업도 56.2%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. 도소매·숙박음식점업의 경우 비중이 전년 대비 1.2%p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.

1인가구 578만명...취업자 3명 중 1명 월 200만원 못 벌어

50대 이상 1인가구 취업자 증가... "고령화 영향"



결혼을 미루고 나 홀로 사는 1인가구가 지난해 580만명에 육박하는 등 해마다 늘고 있다. 이에 따라 취업자 수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1인 가구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은 월평균 200만원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통계청이 25일 발표한 '2018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'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'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1인 가구는 578만8000가구로 1년 전보다 17만1400가구 늘었다. 1인 가구 비중은 29.2%로 전년보다 0.9%p 상승했다.

취업자인 1인 가구는 353만7000가구로 전년보다 10만6000가구(3.1%) 증가했다. 1인 가구 취업자 수는 남자가 204만1000가구(57.7%)로 여자(149만16000가구·42.3%)보다 많았다. 전년과 비교하면 남자는

5만16000가구(2.8%), 여자는 5만2000(3.5%) 늘었다.

이 중 100만원 미만을 받는 1인 가구 임금근로자는 11.3%로 집계됐다. 100만~200만원 미만은 24.6%였다. 1인 가구 임금근로자 36.9%가 월평균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이다. 200만~300만원 미만은 35.7%, 300만~400만원 미만은 17.1%, 400만원 이상은 11.3%로 조사됐다.

산업별로는 농림어업의 경우 100만원 미만 1인 가구 임금근로자 비중이 40.5%로 가장 높았다. 100만~200만원 미만 임금 근로자 비중은 농림어업이 34.7%, 도소매·숙박음식업 34.0% 순으로 높았다.

직업별로는 100만~200만원 미만의 근로자 비중은 단순노무 종사자, 서비스 종사자, 농림·어업 숙련 종사자가 각각 40.8%, 37.3%, 36.1%를

나타냈다. 200만~300만원 미만은 장기·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,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, 사무종사자가 각각 47.6%, 45.2%, 40.4%를 기록했다. 400만원 이상은 관리자 비중이 70.8%를 보였다.

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1인 가구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. 50~64세는 94만2000가구(26.6%)로 1년 전보다 3만3000가구(3.6%) 증가했다. 65세 이상은 38만1000가구(10.8%)로 전년보다 3만16000가구(10.3%) 늘었다. 30~39세 1인 가구 취업자 수는 81만5000가구(23.0%), 40~49세는 72만8000가구(20.6%)였다. 15~29세 1인 가구 취업자 수는 67만3000가구(19.0%)로 1년 전보다 3만2000(4.8%) 증가했다.

통계청 관계자는 "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홀로 나이 드신 분이 많다"면서 "노인 일자리 정책 등을 통해 취업자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. 고령화와 연계되는 것"이라고 설명했다.

1인 가구 취업자 중 156만4000가구(44.2%)가 대학교를 졸업했다. 고졸은 130만9000 가구(37.0%), 중졸 이하 66만4000 가구(18.8%) 순이었다. 1년 전보다 중졸과 고졸 비중은 줄었지만 대졸 이상은 5.2%(7만8000 가구)가 증가했다.

산업별로 보면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 분야의 1인 가구 취업자 수가 133만1500 가구(37.7%)로 1년 전보다 8만7000가구(7.0%) 늘었다. 도소매·숙박음식업은 제조업 불황으로 1년 전보다 1만4000명(-2.0%) 감소한 71만8000 가구를 기록했다.

직업별로 보면 1인 가구 취업자 중 전문직 및 관련 종사자 근무자가 77만5000가구(21.9%), 사무 종사자 52만16000가구(14.9%), 단순노무 종사자 52만2000(14.7%) 순이었다. 지위별로는 1인 가구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가 279만13000 가구(79.0%), 비임금근로자 74만4000 가구(21.0%)였다.

뉴스



임산부 배려식,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?

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
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.
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.

한국언론진흥재단